

“비노는 새누리 세작” 발언에 새정치 휘청

〈제작:간첩〉

혁신위 첫 회의 ‘정체성 재확립’ 주장에 비노 반발

박지원 “최소 4개 그룹 분당·신당 창당 준비”

조국 “만년 2등·늪은 정당에 국민은 마음 안준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부터 계파 갈등의 높은 파도에 휘청이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계파 갈등 해소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내부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혁신위의 첫 회의에서는 4대 원칙 가운데 ‘정체성 재확립’을 새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 오히려 비노 그룹의 거센 반발만 불러왔다. 범진노 및 운동권 위주로 구성된 혁신위가 일반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규정, 이를 기준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진노 지도부가 공천 기준으로 ‘정체성’을 제시하며 비노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진노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의 발언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김 부총장은 트위터에 ‘진 DJ, 진노는 당원의 자객’이라고 전제된 뒤, “비노는 당원 자객 없음, 새누리 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세작(제작·간첩)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쭉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14일 “아주 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어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공개 경고했

다. 하지만, 비노 진영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진노 진영의 복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다.

비노 진영 모 인사는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며 “그들의 폐쇄성과 패권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며 비노나 중도 인사들에게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려면 당을 나가라는 요구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신당론과 분당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최소한 4개 그룹에서 분당이 나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내 신당파가 혁신위의 활동을 지켜분 뒤, ‘장조적 파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도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22일 광주에서 워크숍을 개최, 호남에서 혁신의 초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통합과 단결의 불씨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노 진영 인사들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파 간의 불신과 반목의 간극이 크고 깊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나산다 해도 좀처럼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뭇현장 방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가뭇피해가 극심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를 고령저 농가를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가뭇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조국 혁신위원은 지난 12일 첫 혁신위 회의에 참석, “현재의 새정치연합 앞에는 천천히 죽는 길이 남았다. 이런 모습의 정당에 누가 국가 권력을 맡기겠나”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날 “기득권 고수와 선거 패배,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늪은 정당,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위원은 “새정치연합은 바뀌어야 한다.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야당몫 교문위원장 박주선 유력

산업위원장 김동철·노영민 ‘이전’ 조율 시도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가운데 야당 몫인 교문위와 산업위의 위원장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두 자리에 대한 내정자가 확정되는 대로 다음 분회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함께 공식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후임이 정해진 교문위원장과는 달리 산업위원장의 경우 아직 ‘교동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진통이 일고 있다. 이들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새정치연합 3선 의원들이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인 탓에 이례적으로 경쟁자들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교문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6월19일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설 훈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하고 1년 뒤에 박주선 의원이 교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설 의원은 14일 “약속한 대로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위원장실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위원장의 경우 김동철 현 위원장이 임정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원장도 1년만 하기로 했는데 누군지는 발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임은 노영민 의원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말을 상임위는 산업위원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이에 반박했다. 그는 “교문위는 원내대표 앞에서 (합의)했지만 산업위는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원내대표와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내대표와 이윤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조정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분회의 개최를 요구해왔고 여야는 오는 18일 분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그때까지 산업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야당은 교문위원장만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의 ‘메르스 대응’...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

17%로 여야 대표와 4%P 차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올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장’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11일 성인 1002명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 시장이 17%로, 선두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 조사에서 지난해 7~12월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여야 대표에게 밀리며 3위로 처져 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나란히 13%로 동률을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8% 뒤를 이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6%), 김문수 전 경기지사(4%), 정몽준 전 의원(4%), 이재명 성남시장(2%)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 대선에 지금의 여야 대표가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순위

전국 성인 1,002명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조사기간: 5월12~14일

6월 9~11일

단위: %

박원순 17

문재인 13

김무성 12

새누리당 대표 13

안철수 8

새정치연합 대표 13

오세훈 6

전 서울시장 6

김문수 4

전 경기지사 4

정몽준 4

아산재단 이사장 4

이재명 2

성남시장

자료/한국갤럽

연합뉴스

문제는 김 대표가 39%, 문 대표가 37%를 기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33%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30%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황교안 인준안 밀어 붙일까

與 “15·16일중 표결방침”...野 “18일전엔 안돼” 반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분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분회의 합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15일 또는 16일 단독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 보고서가 단독 채택된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1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분회의가 잡혀 있지만 한시가 급하므로 이번 주 초에 반드시 인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회의 안전 상징의 키를 잡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여전히 가변적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에 격렬히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면서 인준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의사 일정보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정부 질문을 위한 분회의 첫날인 18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분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지켜본 뒤 15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혁신위 대변인에 ‘86그룹’ 운동권 출신 발탁

광주 정재용·경북 임미애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대변인에 ‘86그룹’(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12일 민변 출신 정재용(51·광주) 혁신위원과 경북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출신 임미애(49·여)위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광주(정재용), 경북 의성(임미애) 등 영호남 몫으로 발탁됐고 중앙정치 경향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다.

정재용 대변인은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자문변호사와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대변인은 혁신위 회의에서 “되든 안 되든 이 길밖에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

고 결정했다. 다른 여자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남 민심은 한 마디로 한국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수권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위기 돌파는 구성원의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임미애 대변인은 1992년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여성 지위위원장인 남편과 결혼한 뒤 의성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새정치연합 소속의성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혁신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어찌다 시골에서 소키우고 땅 일구는 촌부에게 혁신을 자문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가사

민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신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중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전형일시	2015. 6. 26(금) 10:00~
합격자 발표	2015. 7. 23(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공학/식품·차산공학/지역혁신자원공학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